

학부최초 茶문화복지과 개설

부산여대 노인·아동·사회복지연계 프로그램 개발

졸업후 다도사범 1급·복지사 2급 자격

'다촌치료법' 정서장애아 치료 큰 효과

학부에 최초로 차(茶)문화복지과가 개설됐다.

부산여자대학(이사장 정상구, 한국다도협회 회장)이 2003년부터 차문화복지과를 개설. 전통문화인 차문화를 복지 실현의 매개로 삼는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차문화복지과는 차 마시는 행위를 '좋은 관계 맺기'의 매개로 삼아 현대인들의 정서적, 신체적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특히 다선일여(茶禪一如)의 정신이 근간이 된 복지프로그램으로 개발, 우리나라 정서에 부합하는 토착적 복지프로그램을 복지현장에 정착시키는 시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문화복지과는 다문화와 복지 특성화 학교인 부산여대가 오랜 준비와 노력 끝에 이루어낸 결실. 차문화복지과는 복지계열의 노인복지, 아

동복지, 사회복지과와 연계해 과학적이고 토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이끌게 된다.

차문화복지과의 교과내용은 사회복지정책론, 지역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을 비롯 예절, 텀다실기, 다문화화, 차의 성분과 효능, 한국다시감상, 복식문화, 꽃예술회, 중앙철학 등이 망라돼 있다.

졸업 후에는 다도사범 1급, 사회복지사 2급, 다도전문지도사, 예절전문지도사, 꽃꽂이 준사범 등 다양한 자격증이 주어지며 유치원, 초·중·고교 사회교육원, 사회복지관 등에서 차문화 보급과 복지의 양 분야에서 활동한다.

대학부설 차문화복지연구회는 차

를 통한 치료법인 '다촌치료법'을 개발, 정서 장애아, 비행청소년, 노인 등에 적용해 뛰어난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12월에는 보호감찰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교계 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해 차와 복지와의 만남을 본격화한다.

정영호 차문화복지과 학과장은 "불가의 선방에서 명맥을 유지해 온 가장 한국적이며 동양적인 차문화를 복지현장에 적용하고 나아가 가장 세계적인 복지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차문화복지과 신설의 취지를 밝혔다.

1954년 설립된 부산여대는 다촌정상구 이사장의 뜻에 따라 20여 년 전부터 전교생이 다문화 교양강좌를 이수 정도로 다문화 특성화 학교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전국 최고의 복지실습실을 갖추고 있으며 차문화복지연구회와 다문화연구실을 두고 차와 복지를 접목시키는 연구를 계속해왔다. 특히 교내에 다문화관, 다촌관, 다박물관 등을 건립, 다문화 발전과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nia.com



◇통도사 인근 1만3천평에 달하는 산림이 초산유원지 공사로 하얀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초산유원지공사...산림 1만3천평 훼손

인근 통도사 자연·수행환경 파괴

경남 양산 통도사로 들어가기 위해 통도사IC를 빠져 나오다 마주치는 맞은편 산이 민둥산으로 변해가고 있다.

한 민간업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초산유원지 공사로 인해 1만 3천

평의 산이 파헤쳐져 자연의 통도사주지 현관가 자연훼손과 수행환경 파괴를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초산유원지는 양산시의 허가를 받아 통도개발이라는 민간건설업체가 개발하고 있는 28만평 규모의 대형 유원지로 골프연습장, 호텔, 콘도, 방갈로, 여관 등의 유희시설과 조각공원, 야외공연장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처럼 통도사 산문에서 2km도 떨어지지 않는 인접 지역에서 자연환

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공사가 계속되자 19일 통도사 영축산 환경위원회 집행위원장 산용 스님은 "국보와 문화재가 있는 전통사찰 부근에 산을 마구 파헤치면서 호텔이나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를 허가당사자인 양산시에 요청했다.

양산시 도로과 관계자는 "통도사 인근이긴 하지만 수행환경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공사중지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산=천미희 기자

동산반야회, 재가불교운동 '박차'

무진장장학재단·동산학술연구소 발족

창립 20주년을 맞은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가 무진장장학재단과 동산학술연구소 설립, 재가불교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은 16일 동산반야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천태학의 심도 있는 연구와 불교 연구자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산학술연구소와 무진장장학재단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산반야회는 무진장장학재단의 학술연구와 불교대중화의 뜻을 기리기 위한 출판사업도 준비 중이다. 특

히 출판 사업 중에는 순수 재가불자의 힘으로 불교 잡지 창간도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동산반야회는 무진장장학재단과 동산학술연구소의 후원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다.

한편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동산반야회는 염상호, 김동한, 안동일, 김홍국, 김기병, 이처환, 이환경, 윤정임, 김영희 등 108명을 '동산을 빛낸 108인'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강유신 기자

조계종 근불교위원회(위원장 성광)가 1년간 '군법당 자매결연 사업'을 통해 398개의 군사찰 중 252곳

군·일반사찰 1년간 63%결연

본사단위 법회지원·군승수급지원 필요

(63.3%)을 일반 사찰과 자매결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은 근불교위원회가 올해를 '군포교 진흥의 해'로 선포하고 연1회 이상 지원할 의사가 있는 사찰과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결연사업을 한 것을 종합한 결과다.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사찰 225곳 가운데 사찰지원이 225곳, 포교사단 등 단체 지원이 83곳, 개별 지원이 21곳이며, 2곳 이상 군법당을 지원하는 사찰은 28곳, 가장

없이 운영되는 280여 곳 법회 지원을 위해 각 지역의 본사단위로 법회지원체계를 마련하고, 10년 미만 스님의 의무복무

등 군승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또 개신교측의 군포교 지원이 한 해 90억에 이르는 가운데 불교는 2-3억원에 불과해 주요 종단들의 군 포교 지원금 확대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

다. 이번 결과와 관련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군 법사들이 법회를 열 때 기본적인 포교물품 조달을 위해 한 사람이 하나의 군법당만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자매결연사업 결과발표 손길이 필요한 신병교육대 군법당을 지원하는 사람은 12곳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300여개의 전방 군법당에 법문지원, 합장주, 책자, 다과지원 등이 부족해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145곳의 군법당은 전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자매결연 사찰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군승법사

문화재청 승격·남북폐사지 복원등

대선공약 내걸고 지지호소

불교언론계 추최

후보초청 토론회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권영길 후보는 11~14일 불교방송 등 불교계 언론사 주최로 열린 16대 대통령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불교문화재 관리 불교계 참여, 문화재청 차관급 승격, 남북 폐사지 복원, 달라이라마 방한 허

용을 약속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회창 후보는 11일 고위공직자와 군중조직 배반 등에 종교적 형평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화재청을 차관급 문화유산청으로 승격시키고 불교문화재 관리에 불교계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다음날인 12일 열린 토론회에서 노무현 후보는 "문화재청을 차관급으로 승격하고 문화재위원의 50% 이상을

불교계 추천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관련 예산 가운데 불교계 지원에 산을 3%선으로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정몽준 후보는 13일 "정착에 종교적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히고, "남북 폐사지 복원이 이뤄져야 하며, 달라이라마의 방한도 이뤄지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회로 나선 권영길 후보는 14일 "종교의 자유는 허용되어야 하며, 종교적 목적의 달라이라마 방한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영 기자

미타사 수행환경 침해논란 일단락

시공사·조합측 대체법당 건립등 수용

고충전문으로 인한 사찰수행환경 침해로 논란이 된 서울 보문동 미타사(주지 자원) 문제가 시공사 및 조합측이 대체법당 건립 등을 수용함으로써 일단락됐다.

15일 보문동1구역 주택조합사무실에서 열린 협상에서 시공사(현대산업개발) 황진하 상무, 정지현 조합장, 주

지 자원 스님, 조계종 총무원 최영직 할사찰담당 등은 현 법당 우측 위에 있는 삼성각을 허물고, 30평 규모의 목조외증 팔각지붕 다포형태의 대체법당을 짓는 것 등을 합의했다. 또 부출입구를 미타사정문에서 15m 이동하고 법당앞 벽면양을 사찰의견에 따르기로 했다. 남동우 기자

목탁소리

김철우 (취재1부 기자)

총지종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강남 총지사에서 열린 '승단 대토론회'는 신임 법공 총리원장이 정제된 승단 분위기를 바꾸고, 승단 전 구성원의 승단발전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였

다. 특히 총지종은 승단 대토론회를 공개하겠다는 의지까지 내보여 '열린 승단'으로 거듭나려는 모습을 교계에 내비쳤다. '무상(無相 불교)'라는 종풍의 총지종이 불상을 따로 봉안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인건으로 다루기로 해 교계의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하지만 불상봉안 문제가 당 안팎에 알려지면서, 총지종은 당초 입장을 바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불상 봉안과 관련한 토론회가 외부로 알려질 경우, 승단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이유에서였다.

비공개 사유에 대해 총지종 한

'열린승단' 총지종?

관계자는 "종풍(종정 격) 특정 종사께서 '불상봉안 문제는 언급할 수도, 언급해서도 안 될 중대 사안이다. 이번 승단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말라'는 교시를 내렸"고 서둘러 해명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에도 토론 내용을 교계에 브리핑하겠다고 총지종은 이에 대해 내용을 일절 밝히지 않았다. 총지종 총리원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간부들이 대거 참여해 승단발전에 대한 토론회까지 열었는데, 굳이 그 결과를 감출 이유가 있을까.

이번 총지종의 갑작스런 태도변화는 '열린 승단'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법공 총리원장의 말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그동안 총지종은 시대를 선도하는 승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늘 강조해왔다.

총지종의 발전은 곧 전통교계의 발전과 직결된다. 총지종은 이런 의미에서 하루빨리 열린 승단 운영의 기틀을 확립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허허!

내 손주들을 먹고있소이다.

자랑스러운 우리태극전사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사진을 확인하셨습니까?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 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100%토종오가피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없다면 즉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 (주)수신토종오 대표 성광수 씨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최근 중국산 오가피를 북한산이나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적발된 업체들이 불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 수신토종오가피는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오직 국내에서 재배한 국산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국내 최대 재배자 성광수씨가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 직접 농장견학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시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문의 및 농장견학신청 (02) 455-7555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종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귀중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훈구 대표

-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 100% 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주) 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11월 28일

"소중한 우리친사들을 위한 선물이 찾아갑니다"